

KIA 김도현 “야수 믿고 오래 버티겠다”

4차례 등판서 3번의 QS…1점대 평균자책점으로 5선발 ‘제 몫’
오늘 삼성전서 시즌 첫 승 도전 “어려움 있어도 티 안 내고 준비”



4번의 등판, 3번의 퀄리티 스타트 그리고 평균자책점 1.93.

선발로 시즌을 시작한 KIA 타이거즈의 우완 김도현의 올 시즌 성적이다.

3월 27일 키움전 첫 등판을 시작으로 김도현은 4월 16일 KT전까지 4경기에 나와 23.1이닝을 책임졌다. 그리고 5.1이닝 2실점(1자책점)을 기록한 8일 롯데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6이닝을 3자책점 이하로 막는 퀄리티스타트를 장식했다.

무엇보다 공격적인 피칭으로 14개의 탈삼진을 뽑아냈고, 볼넷은 5개만 기록했다.

매 경기 선발로서 제 몫을 해준 김도현은 1점대 평균자책점으로 전체 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5선발 경쟁 끝에 자리를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적이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 없는 김도현이다.

“아쉽다”는 김도현은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그건 개인 기록이다. 나는 개인 기록보다 팀 성적이 좋으면 좋겠다. 팀이 이겨야 한다. 그래야 더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되는데, 계속 지니까 아쉽다”고 말했다.

김도현은 평균자책점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 승이 없다. 지난 16일 KT전에서는 6이닝 2실점을 하고도 패전투수가 됐다.

김도현은 야수들을 믿고 팀 승리를 위해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김도현은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 아직 야수들 페이스가 안 올라왔다고 야수들 믿고 던지겠다. 야수들이 도와줄 것이다”며 “강팀은 투타가 잘 맞아서 되는 것 같다. 그제 잘 안 맞으면 어려운 경기가 되는데, 서로 도와주면서 해야 강팀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목표다.

팀에 보탬이 되다가 결과가 좋으면 더 욕심을 내서 좋은 투수로 성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시작은 좋지만 긴 시즌을 풀어가야 하는 만큼 김도현은 상황에 맞춰 성장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선발로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우선 목표다. ‘4일턴’도 선발로서 익혀가야 하는 부분이다. 일단 두 차례 4일턴 등판을 준비했던 김도현은 두 번의 등판이 비로 밀리면서 넉넉한 휴식을 취한 뒤 마운드에 오르고 있다.

김도현은 “하던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했는데, 4일턴을 준비하면 막상 몸이 다른 것 같다. 신경도 더 많이 써야 하고, 몸도 잘 풀어야 하고, 회복이 중요하다”며 “처음으로 계속 5이닝 이상씩 던지고 있어서 잘 쉬고 웨이트도 꾸준히 하려고 한다. 어느 상황에서도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어려움이 있어도 최대한 티를 안 내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매 경기 새로운 마음으로 경기에 집중하는 것도 김도현의 목표다.

김도현은 “평균자책점 기록을 가족이 보내주기도 하고, (변)우혁이가 자주 이야기한다(웃음). 좋은 기록이고 엄청 좋은데 이런 것을 생각 안 하려고 한다. 의식을 하면 다음 경기에 욕심이 생길 것 같다. 하던 대로 똑같이 하겠다”며 “5이닝, 6이닝까지 던지고 싶다. 일찍 마운드에서 안 내려오고 싶다. 볼넷 안 주고 타자랑 어떻게 승부할 지 생각하면서 야수들 믿고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도현은 23일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시즌 5번째 등판에 나선다. 비로 22일 경기가 취소되면서 4일턴 등판 부담을 덜고, 넉넉한 휴식 뒤 마운드에 오르게 된다. 앞선 등판 때와 다르게 타선도 상승세다.

김도현이 ‘삼성전 강세’를 이어 승리투수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삼성에서는 최원태가 선발로 출격해 김도현과 맞대결을 벌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김도현이 23일 삼성과의 원정경기 선발로 나와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김도현은 앞선 4번의 등판에서 1.93의 평균자책점을 찍었지만 승 없이 1패만 기록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광주FC 박태준 ‘베스트11’ 선정

광주FC의 박태준(사진)이 베스트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2일 K리그1 9라운드 베스트11을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박태준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태준은 지난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18분 오른쪽발로 시즌 첫 골을 장식했다.

오후성의 슈팅이 상대 맞고 높게 뛴고, 박태준이 가슴으로 공을 잡아 슈팅으로 연결해 2-0을 만들었다. 광주는 후반 33분 서울 링가에게 골을 내줬지만, 박태준의 득점으로 승리를 만들었다.



9라운드 MVP는 전북 전진우의 차지가 됐다.

전진우는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구FC와의 홈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전진우는 전반 4분 김진규의 크로스를 왼발로 마무리해 선제골을 만들었고, 전반 38분에는 오른발로 멀티골을 기록했다.

전북은 전진우의 활약으로 3-1 승리를 거두고, 베스트팀에 선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

스완지 시티 엄지성, ‘코리안 더비’ 승

양민혁 뛰는 퀸스파크에 2-1 승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에서 펼쳐진 ‘코리안 더비’ 더비에서 엄지성(스완지 시티)이 웃었다.

스완지 시티는 22일 영국 런던의 로프터스 로드에서 열린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와 2024-2025 챔피언십 44라운드 원정에서 2-1로 승리했다.

5연승을 내달린 스완지 시티(승점 60승)는 11위에 랭크됐고, 최근 4경기(2승 2무) 연속 무패를 달리던 QPR은 5경기 만에 패배를 맞으며 15위로 떨어졌다.

이날 경기는 스완지 시티의 공격수 엄지성과 QPR의 공격수 양민혁이 모두 선발로 출전하면서 ‘코리안 더비’로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스완지 시티의 왼쪽 날개로 나선 엄지성과 QPR의 오른쪽 날개로 출전한 양민혁 모두 공격포인트를 따내지 못했지만, 활약도에선 엄지성이 양민혁을 앞섰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엄지성은 81분을 뛰면서 두 차례 슈팅과 3차례 키 패스를 기록한 가운데 67분을 소화한 양민혁은 슈팅 없이 1차례 키 패스를 시도했다.

전반 29분 QPR의 수비수 모던 폭스의 자책골로 앞서 나간 스완지 시티는 후반 10분 추가 골이 터졌고, 엄지성이 득점의 발판을 마련했다.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볼을 잡은 엄지성은 개인기로 수비수 한 명을 따돌리고 크로스를 찰라쳤고, 이



스완지 시티의 엄지성(왼쪽)이 22일 영국 런던의 로프터스 로드에서 열린 퀸스파크 레인저스와 2024-2025 챔피언십 44라운드에서 승리한 뒤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볼이 공격수 리암 쿨렌의 발에 맞고 흐르자 공격에 가담한 센터백 해리 달링이 재빨리 밀어 넣어 득점으로 연결했다.

QPR은 후반 25분 양민혁을 빼고 에머슨 슈턴을 투입하며 만회 골 사냥에 나섰고, 결국 후반 27분 카라모크 뎀벨라의 득점포가 터지며 막판 추격에 나섰다.

스완지 시티는 후반 36분 엄지성을 빼고 올리버 쿠퍼를 내보내며 굳히기에 들어간 끝에 결국 2-1 승리를 맞았다.

/연합뉴스

임성재, KPGA 26년만에 새 역사 쓸까

24일 우리금융 챔피언십서 3연패 도전

임성재(사진)가 한국프로골프(KPGA)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3연패에 도전한다.

임성재는 24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파주시 서원밸리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우리금융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임성재는 2023년과 작년에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이번엔 우승하면 3연패다.

KPGA투어에서 동일 대회 3년 연속 우승은 지금까지 6번 있었지만, 1999년 박남신이 SBS 프로골프 최강전 3연패를 이룬 이후 26년 동안 나오지 않았다.

우리금융그룹의 후원을 받는 임성재는 2022년부터 해마다 이 대회 출전을 위해 잠시 PGA투어를 접고 귀국하곤 했다.

2022년에는 대회 직전에 코로나19에 걸려 귀국하고도 출전하지 못했지만 2023년과 작년에는 시차 적응에 애를 먹으면서도 기어코 우승을 따내 팬들을 열광시켰다.

2023년 최종 라운드 5타차 역전 우승에 이어 작년에는 2타차를 뒤집고 우승했다.

올해도 임성재는 PGA투어 RBC 헤리티지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22일 한국에 도착, 23일 연습 라운드를 한번 치른 뒤 24일 1라운드에 나서는 강행군을 펼친다.

임성재는 “우리금융 챔피언십 3연패는 꼭 이루고 싶다. 출전할 때마다 고구 팬들의 응원에 힘이 난다. 이번에도 많은 현장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의욕을 보였다.

임성재는 최근 마스터스 공동 5위에 이어 RBC 헤리티지에서 공동 11위를 차지하는 등 상승세에 올랐던 만큼 3연패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하지만 KPGA투어 젊은 후배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시즌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작년과 탈라진 기량으로 우승한 2년차 김백준은 임성재의 3연패를 저지하고 2주 연속 우승을 차지



하겠다며 출사표를 냈다.

올해 KPGA투어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점진 조우영,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준우승한 옥태훈, 그리고 미국 진출을 꿈꾸는 최승민 등이 경계 대상이다.

임성재가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을 때는 경기도 여주시 페럼 클럽에서 열렸던 대회가 올해는 서원밸리 골프클럽으로 장소를 옮긴 것도 변수로 꼽힌다.

/연합뉴스

고진영 시즌 첫 ‘메이저 퀸’ 도전

세브론 챔피언십 24일 개막…유해란 등 한국 17명 출전

여자 골프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총상금 800만 달러)이 24일 개막한다.

미국 텍사스주 우드랜즈의 더 클럽 칼턴 우즈의 잭니클라우스 시그니처 코스(파72-6911야드)에서 열리는 세브론 챔피언십은 세계 여자 골프 5대 메이저 가운데 가장 먼저 열리는 대회다.

2021년까지 ANA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명칭으로 열리다가 2022년부터 개최 장소와 명칭을 모두 변경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우승자가 물속에 뛰어들며 ‘메이저 퀸’이 된 것을 자축하는 세리머니는 계속 이어져 왔다.

올해 대회에는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가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코다는 지난해 이 대회를 제패하며 당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5개 대회 연속 우승의

‘초강세’를 이어갔던 좋은 기억이 있다.

2022년 제니퍼 켄초, 2023년 릴리아 부에 이어 지난해 코다까지 미국 선수들이 최근 3년 연속 챔피언이 됐다.

한국 선수로는 고진영, 유해란 등 17명이 메이저 우승에 도전장을 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은 21일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2006년 6월 이후 19년 만에 10위 내에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메이저 대회 우승과 함께 다시 ‘세계 최강’의 위용을 되찾기를 팬들이 더욱 바라는 이유다.

고진영이 이번 대회 전초전 격으로 21일 막을 내린 LPGA투어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공동 7위로 선전했고, 유해란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단독 5위를 차지했다.

한국 선수의 최근 메이저 우승은 지난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양희영이다.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것은 ANA 인스피레이션 시절인 2020년 이미림이 마지막이다. 고진영도 2019년에 ‘호수의 여인’이 된 적 있다.

올해 앞서 열린 LPGA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경험한 김아림, 김효주도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다.

김아림은 LPGA투어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 41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올해 LPGA투어에 입문한 윤이나는 첫 메이저 대회에서 신인상 부문 순위를 더 끌어올린다는 각오다.

윤이나는 현재 신인상 부문 공동 6위다. 신인상 부문 1위 다케다 리오(일본)와 4위 잉리드 린드블라드(스웨덴)는 이미 우승을 한 차례씩 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신인상 포인트 300점을 받을 수 있다. 윤이나와 1위 다케다의 신인상 포인트 차이는 243점이다.

/연합뉴스